

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급한다

미취업 청년 42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교육비·교재비·면접비·교통비 등 구직활동 소요경비 지급

영광군은 지난 25일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42명을 선정했다.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군비(10%)로 미취업 청년에게 교육비, 교재비, 면접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전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참여 여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등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 했다. 선정자에게는 1인당 300만 원(월 50만원, 6개월)이 영광사랑 카드(180만원)와 현금(120만원)으로 지급된다.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 대 상자는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를 군에 제출해야 수당을 지원받

을 수 있다. 선정 이후 전출, 진학, 취·창업,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미 제출 시 취업활동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취업활동수당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민족도 조사 등을 통해 자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마을안길 확장 등 계획

목포시는 지난 24일 유달동 공생원 강당에서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뜰마을사업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달동 대반마을'은 지난 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88가구 11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반마을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재배식 화장실 등이 여전히 존치하고 있어 정주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목포시는 2022년까지 4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40여명의 주민들과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됐다.

이날 시는 새뜰마을 사업의 내용 및 주민의견 등을 설명한 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현실에 맞는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대반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7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영암군은 7월 17일까지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

농업인으로 100시간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00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 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70-6609)에 상담할 수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봉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기정 집청소 자원봉사활동

무안군 봉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관내 저장강 박종이 있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의 집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내·외부를 청소하는 등 대대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92세로 고령인 장 씨는 쓰레기 마저도 버리지 않고 집안에 쌓아 뒀던 내부는 물건으로 밭 디딜 틈 없고 집 안팎에 심한 악취와 별레들이 넘쳐나고 있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봉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요양보호사 25명이 함께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6월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사례회의 실시

위기 청소년 사례발표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 제시 등

신안군은 지난 26일, 신안군청 다목적실에서 2020년 6월 청소년 안전망 실행위원회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신안군가족센터, 전라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암해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신안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 12명의 실행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6월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 청

소년가정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위기 청소년의 사례발표를 통하여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제시와 청소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사례 관리 개입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피드백과 각 기관의 업무 전문성을 공유하면서 신안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통합체계 연계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위기



에 처하거나 학교 밖에 머물지 않도록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맞춤서비스 지원을 위해 각 청소년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와 연계를 통해 지원 방안 및 사례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보호를 위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인 '청소년전화 1388' 및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을 적극 홍보하였다.

목포시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해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7월 한 달 간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공개대상이 되는 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사업은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10억원 이상 예

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등이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신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mokpoplan@korea.kr) 또는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기획예산과)으로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청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